

★ 중앙교회 구역 모임(16-15)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1. 삶 나누기

현대인의 베데스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오른 손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펴 수가 없어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을 하나 둘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펴니까 딸그랑 하고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퍼렇게 녹이 쓴 동전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지금까지 자기 존재와 동전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동전을 움켜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현대는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말려들게 하여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속하게 추진된 근대화 운동 속에서 "가난의 한(恨)풀이"라도 하듯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물질적 소유 즉 돈에 대한 지나친 동기를 부여했던 게 우리의 근대역사입니다. "잘살아 보세", "하면 된다"는 기치아래 정신없이 뛰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질만이 최상의 가치인 듯 그것만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온 게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작정 가지고자했던 욕망의 세월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때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던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 / 요한복음 5:1-8, 암송 / 사무엘하 7:9)

※ 구역장 혹은 강사는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저자:한기채 목사)의 pp.100-102.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절기를 온전히 지키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 갔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많은 병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스스로의 행위가 아닌 순종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게 하십니다.

나눔1. 경쟁사회가 보여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눔2.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눔3. 예수님이 먼저 치료하신 것은 사람의 어느 부분입니까?

나눔4.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3. 은혜나누기

- 1)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 2)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3) 중보기도
 - (1)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북녘 땅에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2) 4월 테마예배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 (3) 4월 생명운동캠페인 “우리 함께 걸어요!”에 많은 참여가 있게 하소서.
 - (4)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러시아 신동조/강영희화목교회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진행을 위해/현지교회 연합운동과 연합사역의 확대를 위해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 16-3~4월 “우리 함께 걸어요”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